

대보름 달맞이 광주로 오세요

다음달 5일...한해 건강·풍요 기원
 서구, 3일 영산강길 달집 태우기
 북구, 3일 문산당산제 풍물 공연
 동구, 4일 오전 지산동 당산제
 광산구, 4일 쌍암공원 등 민속축제

정월 대보름은 새해 첫 보름날로 매년 음력 1월 15일이면 우리 조상들은 다양한 예식 등을 통해 한해의 건강과 풍요를 빌어왔다.

한 해 첫 보름달이 뜨는 대보름(2월 5일)을 맞이해 광주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먼저 동구는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지산2동 당산나무(동구 밤실로4번길) 앞에서 '제13회 지산동 당산제'를 연다. 조대 풍물단의 거리공연과 당산제, 다과회 등이 마련돼 있다. 5일에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용연마을회관 앞마당에서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빌다. 재수굿을 시작으로 용연농악단, 무진농악단, 전통문화예술단 '굴뚝'이 대보름 판과 마당놀이 등을 선보인다.

서구에서는 3일 서창만드르보존회 주관으로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인근에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린다. 4일(오후 4시)과 5일(오후 5시 30분)에는 각각 유덕동 덕흥마을 당산나무 앞, 풍암동 당산어린이공원에서 제물 진설 및 제사, 풍물패 공연, 달집태우기 행사가 펼쳐진다.

북구는 2월 3일 '제23회 정월대보름 문산당산제'를 시작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연다. 300여명 규모로 오전 11시부터 2시간 가량 느티나무 공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풍물 연수와 공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용전마을 길(당산나무 앞)에서 당산제와 굴곡농악 등



을 만나볼 수 있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원삼 각마을에서 풍물놀이, 달집 태우기 등이 진행되며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는 충효동 당산나무 앞에서 당산제를 재현하는 '중효 당산제'도 열린다.

광산구에서도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다.

광산구가 주최하고 사)굿마당남도문화연구회가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및 민속 축제가 2월 4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쌍암호수공원과 응암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약 20분가량 쌍암공원을 시작으로 금광아파트, 금호아파트와 응암공원 일대 길놀이가 펼쳐지며 오방진굿과 달래자가락 등 응암 당산제(오후 5시 50분~오후 6

시 30분)도 열린다. 또 쌍암 당산제와 굿마당, 지신밟기, 축원놀이 등도 마련돼 있다. 이어 달집태우기와 함께 '배 띄워라', '동해바다' 등 남도민요 무대를 선보이고 강강수월래와 진도 아리랑 등을 부르는 대동놀이를 통해 행사의 막을 내린다.

앞서 3일에는 운남경로당 인근에서 운남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오후 3시께 판굿과 길놀이, 소원 지스기 등의 행사가 열린다. 옥동2근린공원에서 4일 오후 5시 평동 정월 대보름 한마당이 열린다. 행사에서는 연날리기, 달집태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산정동 지실마을과 광산농약전수교육관 등에서 광산보존회의 대보름굿, 지신 밟기 등이 펼쳐진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송중기 “곧 아빠 됩니다”

영국인 여자친구와 재혼 발표

배우 송중기(38)가 영국인 여자친구와 결혼 및 임신 사실을 깜짝 발표했다.

송중기는 30일 팬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온 케이티 루이즈 손더스(Katy Louise Saunders)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며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길”이라며 “지금처럼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예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비평 사이트 IMDB에 따르면 송중기가 이날 이름을 공개한 케이티는 1984년 영국에서 태어난 배우로 송중기보다 1살 연상이다.

영화 ‘처녀의 성’(2003), ‘리지 맥과이어’(2003), ‘보르히아: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황’(2006), ‘썸머 퍼스’(2013) 등에 출연했다.

송중기는 열애설이 터지기 전인 지난해 9월 아시아태평양 스타 어워즈(APAN)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전하며 “사랑하는 우리 케이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중기는 케이티에 대해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존경스러운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라며 “그런 그녀 덕분에 저는 더욱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큰 책임감과 열정이라는 날개를 가



배우 송중기(왼쪽)와 케이티 루이즈 손더스.

지고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더욱 높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송중기는 ‘성균관 스캔들’(2010),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2012), ‘태양의 후예’(2016), ‘아스달 연대기’(2019), ‘빈센조’(2021), ‘재벌집 막내아들’(2022) 등에 출연했다.

2017년 10월에는 ‘태양의 후예’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 송혜교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약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현재 영화 ‘화란’(감독 김창훈), ‘보고 타’(감독 김성제)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고(故) 윤정희 서울서 위령미사

배우 윤정희가 30일(프랑스 현지시간) 영면했다.

유족은 이날 프랑스 파리 인근 한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른 뒤 고인의 유해를 뱅센 묘지에 안치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됐으며, 윤정희의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딸 백진희 씨 등 가족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한국에서는 국내 거주 중인 유족 일부의 뜻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성당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미사가 열렸다. 이 성당은 윤정희가 생전 한국에 올 때마다 방문했던 곳이다. 미사는 신자 7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윤정희를 비롯한 10명의 신자를 위해 봉헌됐다.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주임 신부는 미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년에 알츠하이머 투병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고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미사 말미에는 “만약 한국에 사셨더라면 장례 미사를 위한 준비가 크게 들어갔을 텐데, 지금 미사에 나올 수 있는 가족도 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약속으로 연미사(위령 미사)를 봉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주임 신부는 고인이 딸과 찍은 사진을 언급하며 “평생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아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완전히 투신하고 헌신한, 또 봉헌한 그



런 모습이었다”며 “어떤 의미로는 한 분의 성모님 같은 모습마저도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이어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달릴 길을 다 달리셨던 분이 아니셨나 싶다”면서 “아마도 주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리라고 본다”고 애도를 표했다.

윤정희를 위한 위령미사는 2월 1일까지 사흘에 걸쳐 열린다. 유족은 이날 미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31일부터 이틀간은 직접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6년만에 칠석동 고싸움놀이

남구 2월 3~5일 테마파크 일원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고싸움놀이 축제'가 열린다. <사진>

광주시 남구는 6년 만에 정월대보름 맞이 고싸움 놀이를 펼친다. 정월대보름 기념 고싸움 축제는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먼저 3일에는 연을 직접 만들고 날려보는 민속 놀이와 함께 조상들의 생활놀이인 고누대회를 재현한다.

둘째날에는 정월대보름 즐겼던 사자탈춤, 큰기발놀이, 설장고, 소고춤 등 전통연희놀이를 펼치고 판소리와 탭댄스 등의 퓨전국악 공연도 선보인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전통문화연구회 열우의 모듬북, 사물놀이 공연을 비롯해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씨의 무대도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 날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 병창 황승옥의 무대와 함께 샌드아트와 결합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날피복춤과 복정사자놀이 공



연도 열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고싸움놀이는 300여명의 고맬꾼과 줄잡이들이 동부고와 서부고로 나눠 진행된다. 이들은 단결심으로 남도의 기상을 선보이고

대동단결해 올 한해 풍년과 국민대안을 소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민속놀이, 나홀로서커스, 버블팡팡 등 각종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어 어린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